

기독교 콘텐츠전문가 양성, 히즈쇼와 MOU

아신대, 교육 현장과 신학교를 이어 실제적인 기독교 리더 양성 기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모든 교회들의 사역과 활동이 축소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사역이 확대됐고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교회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온라인 사역의 장기화로 기독교 콘텐츠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 활동이 확대되고 있어 오프라인에 익숙했던 많은 교회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다. 한국교회는 미래 온라인 사회를 준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독교 콘텐츠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히즈쇼(His Show)는 기독교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 단체이다. 이미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어린이 유튜브 채널(7.8만)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5만 명의 어린이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히즈쇼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 히즈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독교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500개의 영상



콘텐츠를 통해 아이들은 재미있게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있다.

아신대학교(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시대의 필요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새로운 학부제를

도입한다. 2022년부터 모든 신입생은 2개 이상의 전공이수를 통해 통합적 지식을 배우는 융합적 인재로 미래를 준비하게 된다. 특별히 아신대학교는 교육과 미디어를 이해하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육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준비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기독교 콘텐츠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히즈쇼와 아신대학교는 8월 4일에 기독교 콘텐츠 전문가 양성을 위해 MOU를 체결해 세계복음회를 위한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선교지향적 글로벌 리더를 교육하는 학교와 사역 현장의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하는 히즈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세계복음회에 이바지하는 융합적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학생들은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현장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독교 콘텐츠 전문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공간의 제한이 없는 온라인 글로벌 환경 속에서 콘텐츠를 통한 세계 선교 사역에 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당중앙교회, 비전선포식 인재양성에 박차

선교사 500가정에 30년간 120억 지원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중현 목사)가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또 다른 30년 앞을 내다보며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약 2년간의 교회 건축을 마친 직후인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분당중앙교회가 창립 이래 일관되게 지켜 온 "한 사람이 천 명을 돕고,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인류애를 실천한다"라는 비전을 위해 과감하게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분당중앙교회 최중현 담임목사는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소재한 새 에베당 헤세드홀에서 "새 에베당 임당과 함께하는 비전선포식-축복을 통해 이루는, 인류애 실천의 또 한 시대를 열며(역사 속의 교회를 바라보며)"라는 주제로 교계 언론 기자회견을 가졌다.

분당중앙교회가 이번엔 선포식 비전의 핵심은 2022년부터 선교사 500가정을 선정해 30년간 후원하되, 그 형식을 '연금 납부'로 하는 것이다. 20년 불입 10년 거치 후 시차 30년 시점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매년 6억 원씩 총 1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교파를 초월해 2022년 기준 1차 만 42세, 2차 만 45세 이하 선교사들이 신청 가능하다. 이날 배석한 한 금융회사 임원이자 분당중앙교회 교인의 분석에 따르면, 30년 뒤 각 선교사들이 수령하게 될 금액은 기초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목사는 "이 선교사 연금은 기본생활비 확보로 한국교회 선교 시스템의 구조적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추후 가능하면 500가정을 더 추가해 선교사 1,000가정의 은퇴 후 문제 근본적 해결을 추가로 기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님나라를 위해 평생

헌신해 온 선교사들이 말년에 생활고를 겪는 안타까운 일이 많기에, 그들의 노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그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나 부담 없이 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취지다.

분당중앙교회는 또 한국 사회와 교회의 바로 세움을 위한 각종 언론매체 최고 언론 인재 양성을 위해, 최소 10년간 100명, 이후 가능 시 추가인원을 후원한다. 10년간 매년 1인당 5천만 원씩 10명, 10년간 총 100명에게 50억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하나님나라에 기여할 청년 인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 및 양성한다.

최 목사는 이와 관련, "매년 10명 정도의 최고의 언론 인재를 선발해 한국사회에 바른 여론을 주도할 인재들을 구성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 부분은 조만간 서현동 교회부지 매각이 완료되는대로 법인을 설립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중현 목사는 이같은 비전 선포식에 대해 "역사 속의 교회란 그 발전과 주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지혜와 제도가 보여주는 선이 그런 그림으로 담고, 의미지어지고, 역사 속에 존속하는 것"이라며 "인류애 실천은 특별히 마음먹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일상의 호흡으로서, '한 사람이 천 명을 돕고,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나의 양식으로서 성도들의 삶이며 기쁨이고 감격이기를, 우리의 비전으로 선포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밀알복지재단, 시청각장애인 돕기 '기부 라이딩'

8월 14일부터 이틀간 포항부터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386km 완주

밀알복지재단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 '소통의 장애'라 불리는 시청각장애인을 돕기 위해 기부 라이딩을 진행했다. 이번엔 진행된 기부 라이딩은 시청각장애인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전자정보단말기인 '한소네'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한소네'는 점자와 문자를 상호 호환해주는 기기로서 시청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 독서나 공부, 문서 작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연결도 가능해 정보를 검색하거나 모바일 메신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로 인해 경제적 지력이 어려운 대부분의 시청각장애인들은 5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기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전자정보단말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전자정보 단말기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시청각장애인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 지원 제도는 우선지원 대상을 학생과 구직자·취업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교육이나 직업 활동이 어려운 시청각장애인은 우선지원 대상에 속하기 어려운 데다, 점자 활용이나 소통 능력을 보는 심층면접 과정에서도 사각장애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에 지원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기 쉽다.

경제적 부담으로 '한소네'를 구매할 수 없는 시청각장애인은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돼 답답함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어려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밀알복지재단 유권신 미션사업부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침 하에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포항 영일교부터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총 386km를 자전거로 달렸다.

모금 목표는 3천만 원으로 기부 라이딩 동참을 희망할 경우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 후원 참여로 함께할 수 있다. 모금 목표 달성 시, 모인 후원금은 '한소네' 5대를 구매해 전자정보 단말기가 필요한 시청각장애인에 지원할 예정이다.

기부 라이딩에 나서는 유권신 부장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창작 활동이 가로막힌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을 돕고자 인천 정서전에서 부산 을숙도까지 총 633km를 자전거로 달리는 '633 기부 라이딩'을 기

획·진행한 바 있다. 당시 모인 1천 6백여 만 원의 후원금은 연습실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에게 신규 연습실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에 사용됐다.

유권신 부장은 "전자정보 단말기 '한소네'는 시청각장애인에게 손끝으로 세상을 만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취미로 시작한 자전거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알리고 도울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하며,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시청각장애인 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간 안내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꿈꾸는 사람으로 알려진 요셉. 그러나 저자는 요셉의 꿈이 아닌 그의 삶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한다. 아버지의 편에 속해서 안하무인이던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빠져들던 구렁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후 철저히 하나님과의 동행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에서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요셉의 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었다! 저자는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미숙한 사람이었으며, 그렇기에 하나님과 동행한

다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매일이 힘겹고 옆에 아무도 없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언제나 내 편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길 바란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저자: 홍인기 | 출판사: 규장

발행일: 2021-08-1 | (128*188)mm 176p | 판매가: 10,000원

교리의 기원



'교리의 기원'은 교리의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어떻게 과거가 특히 근대의 기독교 신학자들에 의해 재구성되고 재배치되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이것은 꼭 인정되어야 하는데, 역사적 분석은 기독교 신학이 가장 흥미로운 작업이 아니라, 피분하고, 세심한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한 기록물이라는 인상을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과거의 흐름에 미러 선택된 패턴을 부여함으로써 과거를 질서 있고 신성한 전통으로 종합하려는 사람들의 세련된 분석을 뒤집는 현대의 비판적인 신학적 고찰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편으로는 역사적이며 서술적인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신학적이거나 규범적인 것 사이의 창조적인 변증을 담고 있다.

저자/역자: 알리스터 맥그래스/류성민 | 출판사: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2021-08-20 354p | 판매가: 25,000원

바울과 믿음 언어



이 책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자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믿음'의 개념을 연구한다. 니제이 굽터는 바울이 사용한 믿음 용어가 1세기 당시 유대인과 그리스-로마 세계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개념들의 넓은 스펙트럼 위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바울의 여러 사신을 검토하면서, 바울이 사용한 믿음 언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부각시켜 우리가 바울 사신에서 얻은 신학적 결론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목한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자신의 문화적인 함의가 담긴 개념들, 정작 바울 자신은 염두에 두지 않았을 개념을 부여할 때 우리는 성경 본문을 오해할 수 있다. 신약 성경의 pistis 용법과 그 의미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풍성한 자료와 믿을 만한 이론을 제공한다.

저자/역자: 니제이 굽터/송동민 | 출판사: 도서출판 이레서원

발행일: 2021-08-09 | (147*220)mm 384p | 판매가: 22,000원

한국 교회 7가지 죄



교회의 리더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세상의 인기, 성공하려는 유혹, 영향력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의사는 좋은 직업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직업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를 포함한 영적 리더들도 위험한 위치에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 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 아니라" (눅 12:48). 세태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야 하리라" (요 3:30). 베드로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행 3:12). 바울처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행 14:15)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기록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자: 한기태 | 출판사: 도서출판 두란노

발행일: 2021-08-11 | (135*200)mm 236p | 판매가: 12,000원

성서원, '성경의 노래' 출간 기념 이벤트

총 1,500권 무료 증정, 오는 8월 말까지 진행

성서원에서 성경 전체 1,189장을 시로 읊고 찬송으로 노래한 '성경의 노래' 출간을 기념해 독자들에게 증정 이벤트를 개최한다.

신청자들은 '성경의 노래' 5권 '신약' 편을 받은 뒤 유튜브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책 속 찬송 중 하나를 골라 직접 부르는 영상을 게재하면 된다. 책 수령 후 2주 내에 독서 후기를 올려도 된다. 단 백배는 책 불이다.

이벤트는 총 1,500권을 무료 증정하는 방식이며,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이다. 신청은 성서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5권 '신약' 편은 35,000원에 달한다. 접수는 8월 말까지 진행된다.

<성경의 노래>는 성경 전체 정인 1,189장을 각 장마다



다 시로 읊고 찬송으로 노래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재창조한 내용이다. 저자 김영진 장로는 방대한 분량과 어려운 어휘, 고대근동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을 쉽고 흥미진진하며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제작하고 악보까지 하나하나 정사했다. 책은 찬송가 등을 활용했다.

국제사회 아프간 관심 촉구 성명 발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평환)은 지난 8월 19일(목)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아프가니스탄 아동들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급격한 정세 변화로 인해 아동들이 가장 큰 위험에 처했으며, 이들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행동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또 아프가니스탄 내 학교 폐쇄, 극심한 식량 부족과 더불어 피난민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과 가족들이 은신하거나 피난길에 오르고 있으

며 이들의 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 820만 명을 포함해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절반인 1,840만 명이 인도적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고, 인구의 30% 이상은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연말까지 약 50만 명이 위험을 피해 여러 지역으로 피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지난 3개월 동안 약 100만 명이 국내 실종민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